

구본창 개인전

January 2019 | By Editorial

TREND 7 26



구본창 'OM17', 2014. 청화백자 소장처 고토 이조 박물관,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PHOTOGRAPHY

구본창 개인전

올해 9월에 문을 연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여는 첫 번째 기획전의 작가는 사진가 구본창이다. 30년 동안 구본창 작가가 일궈온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그의 대표작 '백자'와 새롭게 선보이는 '청화백자'를 통해 들여다본다. 2004년 첫선을 보인 '백자' 시리즈는 단순한 형태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카메라 앞에서 백자는 오래된 유물이 아닌 은은한 미감과 여백,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지닌 현대의 오브제로 변신했다. 이처럼 오래된 것과 전통 문화를 섬세하게 해석해 온 그가 2014년부터 관심을 두는 대상은 청화백자다. 조선의 청화백자에서 그는 아름다움을 향한 당시의 욕망을 읽어냈다. 구하기 힘든 파란색 안료 덕에 청화백자는 한때 왕실 외에

는 사용이 금지됐고 사대부 가문에서는 사신을 통해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고 한다. 정교하고 압도적인 중국의 도자, 조형적이고 세밀한 일본의 도자와 다르게 조선에서 칭아하고 소박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미감은, 귀한 안료를 아껴야 했던 현실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구본창이 해석한 청화백자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을 다룬다. 작가는 "모든 사물은 그 시대의 언어지만, 지금 조선 청화백자를 현재의 언어로 다시 읽다 보니 오래된 것들의 힘에 절로 감복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사물이 품은 시간과 만든 이의 숨결까지도 섬세하게 재현한 구본창의 사진 16점은 2월 17일까지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kukjegallery.co.kr